



수능시험 그리고 꿈

박찬규/샘이깊은 물 기자

꿈

마 전 또 그 꿈을 꾸었다.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는 날. 시험 시간이 벌써 지나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길을 잃고 시내 한 복판을 헤매고 있었다. 시험장을 찾으려 골목길을 헤매고 다닐수록 점점 이상하고 낯선 곳이 나타나고, 초조한 마음에 있는 힘을 다해 뛰어 보지만 발걸음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미칠 듯한 초조함에 발을 동동 구르다 깨어나 보면... 꿈이었다.

나는 대학입학 시험을 통과한 지 오래 되었고 대학을 졸업한 지도 벌써 십 년이 되어 간다. 그런데 아직도 바보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십여 년 간 비슷한 꿈을 되풀이해서 말이다.

주위 사람들에게 내 꿈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두들 비슷한 꿈을 꾀다는 것이었다. 답안지를 반도 채워 넣지 않았는데 시험 종료 종이 울리거나, 한참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필이 사라져 버리거나, 꿈의 시나리오는 조금씩 달라도 시험이라는 주제가 반복하여 나타나는 것은 모두 같다고 했다.

입시가 지옥으로 표현된 지는 벌써 오래 되었다. 이 지옥의 기억은 세월이 한참 지나고도 집단적인 강박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칠순을 바라보는 우리 아버지 시대에도 입시 지옥이 있었다고 했다.

집단 강박증은 대를 이어 꿈속에서조차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입시지옥은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입시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좁은 문을 통과하려는 생존 싸움은 더 살벌해졌다.

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 데 시험은 중요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공정한 룰에 의해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더없이 합리적인 제

도이기도 하다. 사회적으로는 능력에 따라 역할을 배분하는 중요한 기능도 맡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시험이 이런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가라는 질문에는 고개가 저어질 수밖에 없다.

대입시험을 보자. 한두 번의 기회에서 얻은 당락과 점수에 따라 사람의 등급이 매겨지고 그 등급이 낙인처럼 평생을 따라다닌다.

대학과 학과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져 있기에 그가 선택한 대학은 곧 그의 신분이 되고 만다.

대입시험이 만들어놓은 우리 사회의 게임에는 “싸늘이의 법칙”이 적용된다. 단 한 번의 게임에서 모든 것을 가져가는 그런 게임의 법칙이다.

입시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법칙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합격과 탈락,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 같은 두 가지의 코드만이 존재하는 사회를 우리는 만들어오고 있었다.

어느 대학교수는 우리 나라 대학이 만들어놓은 사회적 계급 서열을 새로운 “골품사회”라 말한다. 그이에 따르면 “피라미드처럼 층층이 먹이 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대학들은 계급적 불평등의 재생산 장치일 뿐이며 소위 우리 사회의 뜨거운 교육열은 곧바로 추악한 권력욕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험을 치르는 꿈은 탈락과 낙오에 대한 불안을 반영한다. 지난 IMF를 통해 사회에서 미끄러져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우리는 확인한 적이 있다.

얼마 전 전국적으로 수능시험이 치러졌다. 고달픈 레이스를 달려온 수험생들은 이제 오랜만에 발을 뻗고 편안한 잠을 잘 것이다. 그들의 잠 속에는 내가 꾸었던, 또는 많은 선배들이 꾸었던 악몽 대신 더 밝고 아름다운 꿈들이 자리잡기를 바란다.